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에서 요약하기는 능동적인 독서 방법 중 하나이다. 독자가 글을 요약하며 읽으면, 글의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글이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약하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시규칙’이 있다.

거시규칙은 명제들 사이의 의미적인 포함 관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거나 대체하는 방법이다. 거시규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삭제’는 예시와 같은 부연 설명이나 후속 명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란 옷을 입은 형이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에서 ‘노란 옷을 입은’은 후속 명제인 ‘형이 밥을 먹는다.’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다.

둘째, ‘선택’은 명제들 사이의 관계가 분명한 여러 명제가 나열될 때, 특정 명제가 다른 명제들을 모두 의미적으로 포함하는 경우 특정 명제만을 남기고 나머지 명제는 지우는 것이다. 가령, ‘식탁 앞에 앉아 손가락을 들고 우리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는 나열된 명제들 중 ‘우리는 밥을 먹었다.’라는 명제만 선택하는 것이다.

셋째, ‘일반화’는 의미의 포함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개별 명제들을 더 일반적인 명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특히 하의어들을 상의어로 대체할 때에는 의미의 연결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당에는 강아지, 고양이, 토끼가 있다.’라는 문장은 ‘마당에는 동물이 있다.’로 일반화할 수 있지만 의미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마당에는 생물이 있다.’로 일반화하지는 않는다.

넷째, ‘구성’은 여러 명제의 의미를 통합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만든 새로운 명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여행을 가려고 기차역에 갔다. 부산행 기차표를 사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라는 명제들은 ‘나는 부산으로 기차 여행을 갔다.’라는 새로운 명제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독자가 이렇게 거시규칙을 적용하며 요약하기를 할 때는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명제가 남아 있는지, 나열되는 명제들을 간결하게 정리했는지 등을 확인하면 핵심 명제만 남길 수 있다. 또한 각 단락별로 요약된 정보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단락별로 요약된 정보는 더 큰 상위 명제로 대체될 수는 있는지 그 구조를 확인하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A]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거시규칙은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거나 대체하는 방법이다.
- ② 요약하기는 일반적인 명제를 개별 명제들로 바꾸는 것이다.
- ③ 독자는 거시규칙을 통해 요약하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 ④ 독자는 요약하기를 통해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 ⑤ 요약하기는 독자가 능동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2. 다음은 밑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요약하기를 한 결과이다. 요약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나는 겨울을 좋아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 심장, 폐, 근육, 관절 건강에 유익하다. 또한 ㉡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 가령, 지나치게 무리한 운동은 근육에 손상을 주고, 피로를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 운동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시간과 양이 부족하면 늘리고, 많으면 줄이며 해야 한다.

[학생의 요약]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해로울 수 있으므로 운동은 자신에게 맞게 시간과 양을 조절하며 해야 한다.

- ① ㉠은 후속 명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불필요하므로 지워야겠어.
- ② ㉡은 의미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신체’로 대체해야겠어.
- ③ ㉢에서는 특정 명제가 다른 명제들의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자신만의 언어로 만든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로 대체해야겠어.
- ④ ㉣은 앞선 문장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예시이므로 지워야겠어.
- ⑤ ㉣에 있는 여러 명제의 의미를 통합하여 ‘운동은 자신에게 맞게 시간과 양을 조절하며 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명제로 대체해야겠어.

3. [A]와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책의 내용을 짐작하며 읽는 습관은 독자가 책의 내용을 요약할 때 도움이 된다. 특히 목차를 보고 글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면 반복되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각 장의 내용 관계를 파악하여 책의 핵심 내용을 도출하기 쉽다.

- ① 반복되는 내용을 생략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② 글의 구조를 파악할 때 요약을 점검하는 질문이 도움이 된다.
- ③ 문장에 나열된 정보들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④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 글의 중심 내용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된다.
- ⑤ 책의 내용 구조를 예측하며 읽으면 글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이성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성을 통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들이 말하는 이성은 두뇌 작용에 불과하며, 인간은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①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선언으로 집약한다. 그가 말하는 표상이란 인간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을 오감으로 지각하여 두뇌 속에 떠올린 이미지이다. 가령 ‘빨강과 동그란 과일’을 보고 ‘사과’로 인식한 두뇌 작용이 표상이다. 이러한 표상은 충분 근거율에 ② 따른다. 충분 근거율은 인간이 어떤 사물을 표상할 때, 다른 사물과 구분하게 하는 등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두뇌에 작용하는 인간 개개인의 인식 원리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충분 근거율에 입각한 표상이 현실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율에 한해서만 인식된 세계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고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표상된 것일 뿐이며,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단순히 두뇌 작용으로 경험하는 환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실제 세계는 무엇일까? 그는 ‘의지’라고 단언한다. 그가 말하는 의지란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힘이자 욕망으로, 실제 그 자체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러한 의지는 충분 근거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그 자체를 포착할 수 없다.

하지만 세계의 본질인 의지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와 단절된 무엇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이다. 이때 ‘의지가 객관화된다.’라는 표현은 의지가 인간의 감각 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의지가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딱딱하고 동그란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자갈’이라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의지가 객관화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중력과 같은 자연력에서부터 무기물, 식물, 동물, 나아가 인간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은 하나의 의지로부터 비롯하여 각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므로 의지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의지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세계의 본질인 의지가 객관화된 표상임을 밝힘으로써 인간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표상으로 그 본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나)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관념론자들은 세계는 정신의 산물로 보고, 모든 실체는 정신적인 것으로 구성되었거나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자연주의자들은 세계를 자연과 동일시하며, 모든 실체는 실험과 관찰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철학자 가브리엘은 이러한 관점들이 서로 각자의 실재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실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 ㉠실재론을 제안한다.

실재론에 의하면 물질적인 것은 물론 비물질적인 것도 실재하는 대상으로 보며, 모든 대상은 각각 어떠한 하나의 대상 영역에 포함된다. 이때 대상 영역은 포함된 대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특정한 법칙을 가지며, 그 법칙은 대상 영역마다 서로 다르다. 이러한 대상 영역에는 대상만이 아니라 대상과 대상의 관계를 담은 정황인 사실도 포함된다. 가령, 한 알의 사과와 과일 접시가 있는 세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접시’와 ‘사과’는 물리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대상 영역의 대상이며, ‘접시 위에 사과가 놓여 있다.’라는 시공간적 정황은 이 대상 영역의 사실이다. 가브리엘은 인식 주체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판별이 가능한 것은 사실뿐이며, 사실이 참일 때 진리라고 말한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인식 주체가 사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의미장을 통해 세계에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미장이란 인식 주체가 어떤 대상 영역의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조건이나 배경으로, 가브리엘은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재한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면 내 손은 나의 신체라는 의미장에 나타나지만, 내 손을 글로 묘사했다면 그 글이라는 의미장에도 나타난다. 어떤 경우는 내 꿈이나 오해라는 의미장에서 그만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장이 동등하게 존재하며, 모든 의미장에서 나타나는 손들은 모두 각각의 의미장에서 실재이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하나의 의미장에 실재한다고 곧 참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의 대상이 나타나는 의미장이 최소한 두 개 이상 존재해야 실재에 대해 의미 있게 사유하고 토론이 가능하며,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다양한 의미장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며 각각의 의미장으로 경험하는 세계들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관념론자나 자연주의자들이 정신이나 자연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 세계에 접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이나 자연이라는 실체가 진리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미장과 동등한 또 다른 의미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들은 다른 의미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만으로는 실재에 대한 진리 여부, 즉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게 된다.

실재론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각자의 실재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충돌하는 현대 사회에 세계의 본질에 대한 확실한 진리 하나를 던져 준다. 그것은 결국 다양한 관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철학적 관점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해당 이론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철학자들의 주장이 가지는 이론적 장점과 시대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적 관점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가 제시한 핵심 개념들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적 관점에 대해 비판하는 특정 학자의 견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5. (나)의 진실재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재한다고 본다.
- ②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동등한 의미장이 있다고 본다.
- ③ 어떤 대상이 하나의 의미장에 실재하면 곧 참이라고 본다.
- ④ 대상 영역이 가지는 특정한 법칙은 대상 영역마다 서로 다르다고 본다.
- ⑤ 대상 영역에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도 포함된다고 본다.

6. (가)의 '쇼펜하우어'와 (나)의 '가브리엘'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ㄱ. 모든 인식은 개인이 현실을 이해하는 원리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ㄴ. 세계의 본질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이성으로만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 ㄷ. 모든 경험은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에 한정되며, 사물의 실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 ㄹ.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대상은 원자로부터 비롯된 물질로 물리적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 ① 쇼펜하우어는 ㄱ과 ㄴ에 모두 동의하겠군.
- ② 쇼펜하우어는 ㄷ에 동의하지 않고, ㄹ에 동의하겠군.
- ③ 가브리엘은 ㄷ과 ㄹ에 모두 동의하겠군.
- ④ 가브리엘은 ㄷ에 동의하지 않고, ㄱ에 동의하겠군.
- ⑤ 가브리엘은 ㄹ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하겠군.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인식 주체가 경험하는 세계는 의지를 감각 기관으로 포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에는 여러 의미장으로 경험하는 각각의 세계들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② ㉠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떠올린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에는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는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③ ㉠에는 인식 주체가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에는 대상 영역에 포함된 대상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④ ㉠에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라는 의미가, ㉡에는 하나의 대상이 여러 의미장에 나타날 때는 실재에 대해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와 단절되었다는 의미가, ㉡에는 동일한 대상이 여러 의미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8. (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한 원시 부족에는 아이가 홀로 밀림에서 사슴의 뿔을 구해 와야 전사로 인정받는 풍습이 있다. 매일 '사슴의 뿔'을 손에 쥐는 상상을 하던 족장의 아들은 깊은 밤 홀로 밀림에 들어갔다. 길고 단단한 뿔이 난 동물을 보고 '사슴'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 동물을 사냥해 뿔을 잘라 왔지만, 아침이 되어서 보니 자신이 착각하고 부족의 흉물인 '노루의 뿔'을 가져왔음을 알았다. 결국 아들은 전사가 되지 못했지만, 족장은 아들이 가져온 뿔에 아들 이름의 첫 글자를 새겨 첫 사냥을 축하했다.

- ① (가)의 쇼펜하우어는, <보기>에서 아들이 착각한 '사슴'과 아침에 본 '노루의 뿔'을 모두 아들이 표상한 것으로 보겠군.
- ② (가)의 쇼펜하우어는, <보기>에서 홀로 밀림에 들어간 '아들'과 아들이 가져온 '노루의 뿔'은 의지가 객관화된 정도가 다르다고 보겠군.
- ③ (나)의 가브리엘은, <보기>에서 '아들이 가져온 뿔'에 '아들 이름의 첫 글자'가 새겨진 정황은 진리인지 판별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 ④ (가)의 쇼펜하우어와 달리 (나)의 가브리엘은, <보기>에서 아들의 상상 속 '사슴의 뿔'과 아들이 착각한 '사슴'을 모두 실제로 보겠군.
- ⑤ (나)의 가브리엘과 달리 (가)의 쇼펜하우어는, <보기>에서 부족의 흉물인 '뿔'과 아들의 첫 사냥을 축하하는 '뿔'을 서로 다른 실제로 보겠군.

9. ㉢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는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 ② 옆집 아이는 할머니를 잘 따른다.
- ③ 우리는 능선을 따라 산에 올라갔다.
- ④ 우리는 선배를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 ⑤ 아무도 아버지의 음식 솜씨를 따를 수 없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물에 외부의 힘이 작용하면 건물에는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인 진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건물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건물의 진동을 줄이거나 없애는 제진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그중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 제진 시스템은 건물의 진동 크기에 따른 제진에 효율적이다. 자기 유변 유체는 구성 입자가 쉽게 움직이는 액체에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자성 입자를 섞은 물질이다. 이 유체는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성 입자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이 커지는 특징이 있다.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 제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진동하는 가속도를 측정하여 자기장을 생성함으로써 건물의 진동에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은 가속도 감지기, 제어기, 감쇠기에서 응답 인식 과정과 감쇠 제어 과정을 순환하며 이루어진다.

응답 인식 과정은 건물에 외부 힘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건물의 진동 상태를 가속도의 크기로 산출하는 과정이다. 건물이 진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한쪽으로 움직이면, 먼저 가속도 감지기 내부에서는 특정 질량을 가진 질량체가 관성에 의해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압전소자에 힘을 가한다. 이렇게 힘을 받은 압전소자에서는 전압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전압은 크기가 매우 작아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자체 전원을 지닌 제어기에서 가속도 감지기로 전류를 보내 가속도 감지기에서 발생한 전압을 증폭시켜 수신한다. 이후 제어기는 수신한 전압의 값을 토대로 건물의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한다.

감쇠 제어 과정은 응답 인식 과정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에 따라 건물의 운동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건물의 진동을 줄이는 과정이다. 감쇠기는 자기 유변 유체가 들어 있는 밀폐된 원통 실린더 안에, 실린더 내부 벽면에 밀착하여 실린더 양쪽 끝을 왕복하며 이동하는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장치이다. 이 피스톤에는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이어지는 가늘고 긴 구멍이 나 있다. 건물이 진동하면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실린더 끝 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피스톤이 이동하는 쪽 실린더 공간에 들어 있는 자기 유변 유체는 피스톤이 밀어내는 압력에 의해 피스톤의 구멍을 통과하여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쪽 실린더 공간으로 이동하며 마찰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로 인해 건물의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감쇠가 일어난다.

만약 응답 인식 과정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크면, 제어기에서는 감쇠기로 전류를 보내 피스톤 주변에 자기장을 생성하여 감쇠기의 자기 유변 유체의 점성이 커진다. 이때 전류의 크기와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하며, 유체의 점성의 크기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로 인해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감쇠기의 감쇠력도 증가하게 된다. 이후 응답 인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건물의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하여 그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작아지면 제어기는 감쇠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아 ㉠ 감쇠기는 자기 유변 유체가 지닌 기존 점성의 크기만으로 건물의 진동을 감쇠시킨다.

이러한 과정들을 순환하며 작동되는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 제진 시스템은 일상의 작은 진동부터 지진으로 인한 큰 진동까지 건물의 진동 상태에 맞게 제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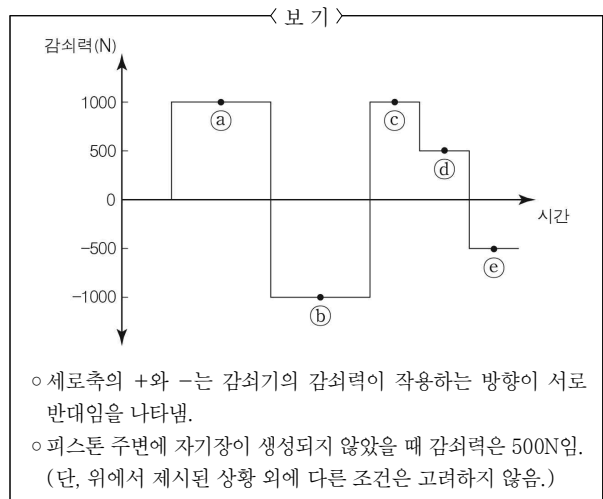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건물에 외부의 힘이 작용하면 진동이 발생한다.
- ② 감쇠기의 피스톤에는 가늘고 긴 구멍이 나 있다.
- ③ 제진 시스템의 제어기는 자체 전원을 지니고 있다.
- ④ 압전소자에서 발생한 전압의 크기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 ⑤ 가속도 감지기는 제어기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를 수신한다.

11. 자기 유변 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변에 형성된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물질이다.
- ② 건물의 진동에 비례하여 전류를 생성하는 물질이다.
- ③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을 지닌 물질이다.
- ④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자성 입자가 액체에 섞여 있는 물질이다.
- ⑤ 건물의 제진 시스템에서 감쇠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12. <보기>는 시간에 따른 감쇠기의 감쇠력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윗글을 이해한 학생이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건물의 진동이 시작될 때 가속도 감지기의 질량체가 압전소자에 힘을 가한 방향은 ㉠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이겠군.
- ② ㉡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은 ㉣에서 자기 유변 유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서로 다르겠군.
- ③ ㉢부터 ㉣ 사이에서 자기 유변 유체의 점성은 크기가 작아졌겠군.
- ④ ㉣과 ㉤ 사이에서 제어기는 감쇠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겠군.
- ⑤ ㉤에서 가속도 감지기 내부의 압전소자에서 발생한 전압의 값은 ㉠일 때보다 작아졌겠군.

13. 윗글을 읽고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어기에서 더 이상 건물의 가속도 크기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감쇠기의 자기 유변 유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③ 감쇠기의 마찰로 인해 건물의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모두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 ④ 가속도 감지기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 ⑤ 피스톤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아 자기 유변 유체의 자성 입자의 배열이 풀렸기 때문이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합형 게임은 경제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하여 협력한 결과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제학 이론이다. 여기서 연합이란 경제주체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경제주체의 전체나 일부가 형성한 집단으로, 연합의 경제주체들은 협력의 결과를 분배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기준으로 새플리 값이 있다.

새플리 값은 연합의 경제주체들이 분담할 총비용을 각 경제주체가 연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경제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기회 균등성을, 경제주체들이 연합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총비용의 증가분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여 공정성을 가진다.

새플리 값을 구할 때는 먼저,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마다 연합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한계기여도를 계산한다. 이때 한계기여도는 특정 경제주체가 연합에 참여하면서 연합에서 발생한 총비용의 증가분을 ㉠ 뜻하며, 이는 특정 경제주체가 참여하면서 발생한 연합의 총비용에서 특정 경제주체가 참여하기 전에 발생한 연합의 총비용을 ㉡ 빼서 구한다. 다음으로 이렇게 구한 경제주체들의 한계기여도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경제주체별로 모두 더하면 경제주체들의 새플리 값이 결정된다. 이때 가중치란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중 특정 순서로 형성된 연합이 나타날 확률을 뜻한다. 이렇게 가중치를 한계기여도에 곱하는 이유는 경제주체들이 연합에 참여하는 순서에 따라 한계기여도가 ㉢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주체들이 연합에 참여하는 모든 순서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가상의 게임 상황을 통해 새플리 값을 구해 보자. 함께 여행을 간 갑과 을이 숙소에서 이동 수단을 불러 같은 경로에 있는 서로 다른 유적지로 가는데, 이동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상황이다. 갑과 을이 각각 이동 수단을 불러 숙소에서 유적지까지 ㉣ 갈 때 갑은 2,000원, 을은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갑과 을이 연합을 형성하여 동승하면 총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먼저 갑과 을의 한계기여도를 구하면, 갑이 부른 이동 수단에 을이 추가로 동승하는 경우에는 갑이 탑승하기 전 발생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갑의 한계기여도는 2,000원이 된다. 그리고 을의 한계기여도는 갑이 부른 이동 수단에 을이 동승하면서 발생한 총비용 4,400원에서 을이 동승하기 전 갑이 탑승하여 발생한 총비용 2,000원을 뺀 2,400원이 된다. 을과 갑의 순서로 연합을 형성하여 동승하는 경우에는 을의 한계기여도는 4,400원, 갑의 한계기여도는 0원이 된다.

이렇게 갑과 을이 연합을 형성하여 동승하는 순서에 따라

한계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이 동승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구한 한계기여도에 가중치를 곱한다. 갑과 을이 동승할 수 있는 경우는 갑과 을의 순서로 동승하는 경우와 을과 갑의 순서로 동승하는 경우로 모두 두 가지이다. 각각의 경우가 나타날 확률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이므로 가중치는 1/2이 된다. 갑과 을이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연합에서 구한 각각의 한계기여도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갑과 을별로 모두 더하면, 갑과 을의 새플리 값은 각각 1,000원과 3,400원이 된다. 두 값을 더하면 갑과 을이 연합을 형성하여 동승한 경우에 발생하는 총비용인 4,400원과 ㉤ 같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의 새플리 값을 모두 더하면 경제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하여 발생하는 연합의 총비용과 같다. 따라서 ㉠ 새플리 값은 연합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이 분담할 총비용을 균등한 기회 아래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준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플리 값이 사회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과 같은 시장경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비용 분담 문제에도 적용되고 있다.

14.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새플리 값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새플리 값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③ 새플리 값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가?
- ④ 새플리 값에서 가중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⑤ 새플리 값으로 비용을 분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15.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지자체 A, B, C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한 상수도를 건설하려고 한다. 지자체 A가 취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1구간만 건설하면 되고, 지자체 B는 1, 2구간을 모두 건설해야 하며, 지자체 C는 1, 2, 3구간을 모두 건설해야 한다. 이때 지자체별 상수도 건설 비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A	B	C
건설 비용	6억 원	22억 원	30억 원

지자체 A, B, C는 상수도 건설을 위해 모두가 참여하여 연합을 형성하기로 하고,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은 새플리 값으로 정했다. (단, 위에서 제시된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지자체 A, B, C가 모두 참여하여 형성된 각 연합들의 가중치는 모두 같겠군.
- ② 지자체 A, B, C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경우, 지자체 C의 한계기여도는 지자체 B의 한계기여도보다 크겠군.
- ③ 지자체 A, B, C의 새플리 값을 모두 더하면 세 지자체가 형성한 연합에서 발생하는 총비용과 같겠군.
- ④ 지자체 B, A, C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경우, 지자체 C가 참여하면서 연합의 총비용은 8억 원이 증가했겠군.
- ⑤ 지자체 B, C, A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경우,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겠군.

16. 밑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플리 값은 경제주체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한 연합을 형성할 때 참여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새플리 값은 경제주체가 연합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가중치를 크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 ③ 새플리 값은 경제주체가 연합에 기여하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고, 연합에 참여하는 순서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 ④ 새플리 값은 경제주체들이 참여하여 형성할 모든 연합을 고려하고, 연합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분에 반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하게 하기 때문이다.
- ⑤ 새플리 값은 연합을 형성한 경제주체들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연합을 형성하는 경제주체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합에서 발생한 총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7.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미(意味)하며
- ② ㉡: 감(減)해서
- ③ ㉢: 변동(變動)될
- ④ ㉣: 회귀(回歸)할
- ⑤ ㉤: 동일(同一)하다

[18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영릉태수 진한이 모반해 군사 수만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유주를 함락했다. 천자는 여러 번 대병을 보냈으나 이들이 번번이 패하자 문무 대신과 의논해 사문에 방을 붙여 장사를 모집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영이 원 부인에게 말했다.

“소자가 이때를 타 국적을 소멸하고 원수를 갚고자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원 부인이 슬퍼하며 말했다.

“㉠ 네가 이미 장성했고 용맹이 뛰어나니 근심은 없으나 다만 내 나이가 많으니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아 슬프구나.”

영이 원 부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모친은 과도히 염려하지 마소서.”

그러고는 원 부인에게 하직하고 집을 떠나 밤낮으로 달려 항성에 도착했다. 그리고 한 곳에 붙어 있는 방문을 보고 이를 때니 관원이 달려와 그 이유를 물었다. 영은 품속에서 자기가 쓴 상소를 내어 관원에게 주며 이를 천자에게 전하라 했다.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익주 금병산에 사는 장영은 돈수백배하고 패하게 이 상소를 올립니다. 진한이 과거 남양태수 오세신과 공모해 신의 아버지 필환을 모함해 죽이고 어미를 겁박하려 했습니다. 이에 신의 모친이 피를 써 오세신을 죽이고 신을 보호하려다가 세신의 처 진씨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모가 신을 업고 익주로 달아났는데 송나라에서 벼슬하던 원귀의 누나가 거두어 양자로 삼았으니 신은 10여 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신의 부모가 오세신에게 죽은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 진한은 신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재촉해 모반했으니 이제 신이 복수할 때입니다. 원하건대 패하게서 신에게 한 무리의 병사를 빌려주신다면 진한을 베어 국가의 근심을 덜고 신의 원수를 갚겠나이다.’

상소를 모두 읽은 천자는 장영을 크게 칭찬하며 말했다.

“짐이 장사를 모집한 지 오래되었으나 응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영의 상소를 보니 짐짓 장수와 제상의 재주를 모두 갖추었구나.”

그러고는 장영을 불러 보니 제비 새끼처럼 옆으로 퍼진 턱에 범 같은 머리를 갖고 있어 참으로 제후가 될 골상을 지녔을 뿐 아니라, 키는 8척이나 되었고 위풍 또한 늠름했다. 상이 그 모습을 매우 기특하게 여겨 말하기를,

“짐이 장영을 얻었으니 어찌 진한을 근심하리오?”

하고는 영을 대원수로 삼고 군사 6만 명을 주니 장영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경사를 떠났다.

며칠 후 영릉 지경에 도착한 장영은 먼저 진을 치고 진한에게 국가의 근심을 덜고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내용의 격서를 보냈다. 이를 본 진한이 크게 화를 내자 한 장사가 자원해 싸우고자 했으니 그는 진씨의 오라비 진건이었다. 진한은 크게 기뻐하며 정병 3만을 주었고 진건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나와 장영에게 싸움을 걸었다. 진건을 본 장영이 큰소리로 호통치며 말했다.

“너는 진한과 어찌 되는 놈이냐?”

진건이 말했다.

“나는 오세신의 처남 진건이다. 네 어미가 오 태수의 첩이 되었다가 간계를 써 태수를 죽이고 도망했거늘 네가 무슨 낮으로 큰소리를 치느냐?”

[중략 줄거리] 진건을 물리친 장영은 오세신의 아내 진씨를 붙잡고,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익주자사가 된다. 진씨로부터 친모 한씨가 승려가 되어 살아 있다는 말을 듣게 된 장영은 계룡사에 가 한씨를 만난다.

꿈인지 생시인지를 깨닫지 못한 한씨가 장영을 붙잡고 울며 말하기를,

“영아, 내가 죽어서 너를 보는 것이냐?”

하고 혼절하자 장영과 계향은 놀라 급히 약물을 먹고 간호했다. 잠시 후 한씨가 정신을 차리자 장영은 원 부인에게 사람을 보내 모친의 소식을 전하는 한편, 모친을 모시고 법당으로 들어가 절을 올린 뒤 원 부인의 양자가 된 일부터 익주자사가 되어 계룡사에 오게 된 사연을 낱낱이 고했다. 한씨 또한 그간의 일들을 소상히 말하며 두 사람은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며 함께 밤을 보냈다. 날이 밝자 장영은 한 부인을 모시고 원 부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두 부인은 서로를 반기며 예를 마쳤고 한 부인이 감사해하며 먼저 말했다.

“㉡ 부인에게서 내 자식을 거두어 양육해 부친의 원수도 갚고 나와 다시 만나게 하셨으니 이는 죽은 나무에 다시 꽃이 핀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몸은 부평초처럼 떠다니다가 늙어 죽어 외로운 귀신이 되었을 것이니, 부인의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원 부인이 겸양하며 말했다.

“이는 다 부인의 정절에 하늘이 감동하심이니 내게 무슨 공이 있으리오?”

장영은 이날 두 모친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두 부인은 답소하며 잔치를 즐겼다.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니 장영은 크게 화를 내며 곡소리 내는 이를 잡아 오라 했다. 하인이 한 사람을 끌고 오니 이는 다름 아닌 진씨였다. 장영이 큰소리로 꾸짖으며 물었다.

“네 죄가 매우 중하거늘 죽거나 기다릴 것이지 어찌 방자하게 울어 흥을 깨는 것이냐?”

진씨가 말했다.

“즐거운 사람은 좋겠지만 서러운 사람이야 어찌 즐겁겠나이까?”
장영이 화가 나 칼을 뽑자 한 부인이 급하게 말리며 말하기를,
“진씨는 착한 부인이다. 남편을 위해 복수하려는 것이 당연하니 어찌 죽이겠느냐?”

하고는 진씨를 붙들어 자리에 앉히고 위로하며 말했다.

“제인사에서 헤어진 뒤 소식이 끊겼는데 오늘 이리 보니 매우 반갑구려. 그대는 여전히 날 해할 마음이 있는가?”

진씨가 답했다.

“그 마음이 죽기 전에는 어찌 사라지리오?”

이 말을 들은 한 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진실로 열녀로다.”

그러고는 영을 돌아보며 말했다.

“진씨가 나를 해치려는 것은 내가 오세신을 죽인 것과 같으니,
저가 내게는 원수이나 또한 열녀로다. 죽이는 것이 불가하니
인마(人馬)를 갖추어 체집으로 보내거라.”

장영은 모친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진씨를 놓아주었다.

— 작자 미상, 「장한절효기(張韓節孝記)」—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우의적 소재를 통해 대상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배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1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자의 군사들은 진한의 군사들에게 여러 차례 패하였다.
- ② 황성에서 장영은 관원을 통해 천자에게 상소를 전했다.
- ③ 영릉 지경에 도착한 장영은 진한에게 격서를 보냈다.
- ④ 법당에 들어간 장영은 계향이 간호하던 한씨를 발견했다.
- ⑤ 원 부인의 집에 돌아온 날에 장영은 두 모친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2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자신의 사정을 언급하며 비애감을 드러내고 있고, ㉡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상대방에게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상대방의 능력을 강조하며 자신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고, ㉡에서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고, ㉡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언급하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며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고 있고, ㉡에서는 상대방이 처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며 미래의 일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고, ㉡에서는 실제 일어난 일과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방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장한절효기」는 두 가문의 반복되는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인물들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가족과 이별을 겪기도 하고 국가의 위기와 관련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인물들은 효와 절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자신의 입장에서 충실히 지키며 상대방에게 맞서는데, 자신을 적대하는 상대의 입장에서 그 행동의 윤리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인물도 나타난다.

- ① 장영이 천자에게 병사를 요청하며 자신의 각오를 드러내는 것에서, 국가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식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고자 함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진건이 장영과 대적할 때 과거에 장영의 어머니와 오세신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언급하는 것에서, 두 가문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한씨와 장영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별을 겪었던 가족이 재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원 부인이 한씨의 정절을 치하하며 한씨에게 공을 돌리는 장면에서, 자신과 맞서고 있는 상대의 행위에 대해 윤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진씨가 한씨에게 자신의 심중을 토로하는 장면에서, 남편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윤리적 가치를 자신의 입장에서 지키려 함을 짐작할 수 있군.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원정(淸源亭) 돌아들어 **고을을** 바라보니
 소나무 굳은 절개 지금도 빛이 난다
충효도 갖추었구나 **열녀도** 많고 많다
 서하(西河)의 미속(美俗)이오 추로(鄒魯)*의 유풍(儒風)*이라
 늙은이가 성은 입어 이 땅의 **수령** 되니
유풍을 가르칠까 **교화를** 이끌까
 공자 맹자 아니라도 천성을 길러준다
 ㉠ 백성들이 **감화하니** **교화할** 필요 없네
 었그제 수령 되었는데 어느 사이 삼 년이고
 유산(遊山) 음주는 안 하는 것이 옳지만은
 풍속을 살피는 것은 아니하고 어찌하리
 춘강에 **배를 띄워** **노룡연(老龍淵)으로** 내려가니
 ㉡ 강가의 술바람은 거문고 소리에 **화답하고**
바위 사이 진달래는 푸른 물결에 비치네
 어부의 긴 그물을 상하에 가로 치니
 한 자 넘는 큰 물고기 물가에 솟아 뛰니
 ㉢ **한유(韓愈)의** 가을 독서 두보의 겨울 시회(詩會)
 이 거동과 견주면 어느 것이 낫단 말이고
 ㉣ **남여(藍輿)에** 비스듬히 앉아 **백석정(白石亭)에** 오르니
 사람은 어디 가고 빈터만 남았는가
 청풍이 완연하여 노송에 머물렀나
 외로운 배로 거슬러 올라 영귀정(詠歸亭)에 내려 앉아
 송림을 바라보니 ㉤ **퇴계** 선생 사당이로다
 사당 뜰에서 경건하게 신위에 배례하니
 모습을 뵈는 듯 백 년이 지났어도 감개가 무량하다
 공자는 근원 멀고 정자(程子)*는 가까우니
 후학이 옛일 보아 퇴계 선생 본받아라
 (중략)
 팔월 보름밤에 수조가(水調歌) 읊으니
 천 년을 짧은 시간으로 여기니 마음은 한가지라
 모진 바람 땅을 쓸고 자욱하게 눈 내릴 때
 ㉥ **깊은 밤 명금각(鳴琴閣)에** 촛불을 밝게 켜고
고아주(羔兒酒) 가득 부어 **고운 노래** 들으니
 지방 수령의 영화로움 이것 외에 또 있을까
 사미인곡 한 곡조에 뜨거운 마음 절실하다
 나라에 몸을 바쳐 백성을 다스리니
 높은 벼슬에 못 올랐으나 **선정에** 힘을 쓴다
 나랏일도 분주하고 병도 점점 깊어지나
임금님께 **매인** **마음** 잠들기 전 잊을쏘나

— 정식, 「축산별곡(竺山別曲)」—

* 추로: 맹자의 출생지인 추나라와 공자의 출생지인 노나라.

* 유풍: 유학의 풍습.

* 정자: 송나라 때 성리학자 정호와 정이.

(나)

옥중의 아무는 평소 내가 믿고 존경하던 사람이라 문장을 짓고 윤색할 때면 심부름꾼을 통해 서신을 주고받으며 조언을 구하곤 하였다. 하루는 그가 나에게 말을 전해 왔다.
 “나는 지병이 있는 몸으로 횡액을 당하여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소. 이런 사정을 수령에게 알려 선처를 구하고 싶으니, 그대가 나를 위해 글을 지어 주소.”

나는 애처로운 마음에 곧 초안을 작성하여 그의 지친이라는 사람에게 보여 주었다. 그런데 지친이란 자가 다 읽고 나서 벌컥 화를 내며 말하였다.

“이런 글을 올리면 틀림없이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외다. 그리고 문장이 영 좋지 않으니 못 쓰겠소이다. 갑(甲)에게 청해 보리라.”

갑은 그의 이웃인데 문명(文名)이 있는 사람이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이 말이 공정한 말이 아님을 알고는 즉시 거것으로 돌려대었다.

“이 글은 갑이 지은 것이오. 집사는 어찌 그리 안목이 없으시오?”

이 말을 듣고 그 지친이란 자가 한참 동안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하였다.

“그렇소이까? 다시 보니 이것도 어지간하군그래.”

또 한참 있다가,

“이거 좋소이다. 정말로 갑의 솜씨구먼.”

하더니, 또 한참 있다가는 손으로 탁자를 치며 말하였다.

“내가 건성으로 보았다가 좋은 문장을 놓칠 뻔했소이다. 이 글이 올라갔다 하면 아무는 틀림없이 풀려날 것이외다. 아무 구(句)와 아무 자(字)는 기이하고 묘하오이다. 갑이 아니고서야 이런 글을 지을 수 없지요.”

그러고는 마침내 써 올리기를 허락하였다. 나는 밖으로 나와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사심(私心)은 참으로 털끝만큼도 마음속에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략)… 이 글은 한 편의 문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 글이라 생각하고 보면 좋지 않고 갑의 글이라 생각하고 보면 볼수록 좋아지니, 우물이 장술을 깎아내리고 심약에게 아첨한 방법이 바로 이러하였습나다. 글이 금세 탈바꿈해서도 아니고 눈이 잠깐 사이에 바뀌어서도 아니라 오직 보는 자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글을 평가할 적에 **글 자체**의 좋고 나쁨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글쓴이의 명성이 있고 없음에 따를 뿐이니, 식자(識者)의 입장에서는 비웃음을 당한다고 수치스러울 것도 없고 칭찬을 받는다고 영광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글쓴이의 명성**을 기준으로 **글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갑은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하여 문단(文壇)에 이름을 드날렸으니, 명성이 이미 사람들의 심안(心眼)을 휘어잡기에 충분합니다. 반면에 저는 비록 어려서부터 글을 읽어 옛 성인의 도를 배우고 있지만 20세가 넘도록 이룬 것이 없어 보잘것없는 신세이니,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자신을 돌아보면** 두려워서 출지도 않은데 **몸이 떨** 리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당하고 보니 더욱 자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저 사람이 제 글을 한번 깎아내리고 치켜세우는 동안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으니, **이번 경험**이 스스로 분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저 이가 사람이 나쁘다고 그 사람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는 않았던 옛 성인의 원칙을 펴 개치고 따르지 않은 것은 슬프지만 그렇다고 어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 **퇴계** 선생이 시골집에서 “이 서방!”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여 찬찬히 살펴보니 촌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퇴계 선생은 ‘나도 이 서방이고 저

사람도 이 서방이라 호칭이 같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이다.’ 생각하고는 더욱 노력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 결국 대현(大賢)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초한 것도 퇴계 선생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 윤기, 「명성에 대하여」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해석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이 나타난다.
- ② ㉡: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 ③ ㉢: 다른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④ ㉣: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 후 느낀 심회가 나타난다.
- ⑤ ㉤: 늦은 시간에 흥취를 돋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2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자신과 다름이 없다고 여기는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타인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후회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후학에 대한 권면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자신이 머무르는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활용한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 주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과 상충되는 의견들을 절충하기 위해 활용한 대상이다.

25.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논의의 대상을 타인의 행위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전환하고 있다.
- ② 글쓴이는 자신에 대한 다양한 인물들의 평가를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타인의 주장을 두둔함으로써 해당 인물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글쓴이는 타인의 삶의 내력을 시간순으로 제시하며 해당 인물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언급하면서 타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대부에게 관직은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기반이면서, 개인적 성취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가)의 작가는 지방관으로, 직무를 행하며 풍속을 살피고 경관을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는 중에 선정에 의지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작가는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대부로, 세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정진의 계기로 삼으며 지위와 명예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고을을 바라보’며 ‘충효도 갖추’고 ‘열녀도 많’다고 한 것에서 지역의 풍속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군.
- ② (가)의 ‘배를 띄워 노룡연으로 내려가니’ ‘바위 사이 진달래는 푸른 물결에 비’친다는 것에서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③ (나)의 ‘글 자체’보다 ‘글쓴이의 명성’에 따라 ‘글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벗어나 되겠’냐고 한 것에서 대상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편견을 갖는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군.
- ④ (가)의 ‘수령 되’어 ‘유풍을 가르칠까 교화를 이끌까’라고 한 것에서 지방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생각하는 모습이, (나)의 ‘평소 자신을 돌아보면’ ‘몸이 떨’린다는 것에서 지금까지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온 것을 반성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⑤ (가)의 ‘선정에 힘을 쓴다’고 하며 ‘임금님께 매인 마음’을 잊지 않는다고 한 것에서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는 모습이, (나)의 ‘이번 경험’을 자신에게 ‘유익한 일’로 여긴다는 것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개인적 성취를 위한 정진의 계기로 삼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낮이 기운 뜨거운 별은 사정없이 내리쬐여서 다니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그는 한참 서서 망설이다가 기운 없는 다리를 겨우 끌고 ××신문사로 찾아갔다. ××신문사 학예부에 있는 **김을 찾아서 원고를 써주기로 하고 돈 교섭**을 할 작정이다. 그것도 조르기는 괴로운 일이나 어떻게 하든 도리가 없으니 엄치를 등 뒤에 물리치고라도 교섭하는 수밖에 없었다.

“글쎄 미리는 지출치 않아…… 얼마간 써서 실은 뒤가 아니면 어려운데…… 이삼 일 안으로 좀 써보지……”

김도 춘수의 형편이 딱한 듯이 말하였다. 춘수는 하는 수 없이 이삼 일 안으로 무엇이나 쓰기로 하고 거리로 나왔다. 그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거리로 내려오다가 다시 청진동 골목에 들어서서 중학동 어떤 친구를 찾아갔다. 몸에 열은 그저 내리지 않아서 걸을수록 더욱 괴로웠다.

그는 한참 만에 중학동 천변에 있는 어떤 집 앞에 이르렀다. 정작 대문 앞까지 이르니 발이 무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괴로워하는 남을 조르기도 어려운 일이고, 갖은 궁한 소리를 다 하면서 구걸하기도 자기의 존재가 아주 깃잡히는 것 같았다. 그는 한참 서서 망설였다. 그러나 **목전의 현실은 그의 발을 문 안으로 끌어들었다**. 그 친구는 있으나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는 할 말을 못 하고 한편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열른 가지 않고 신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미운 생각까지 났다.

춘수는 두 시간 뒤에 그 집을 나섰다.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알지 못할 그림자가 두 어깨를 꼭 누르는 것 같아서 발이 땅에 닿지 않다시피 뛰어나왔다.

“또 만남시다.”

하는 주인의 소리는,

‘다시는 오지 말아주오. 제발.’

하는 소리 같아서 마음이 근절근절하였다.

대문 밖에 뛰어나와서 호주머니에 든 ① **원 지폐**를 다시 만져 보니 큰 성공이나 한 듯이 시원하였으나 몇 걸음 못 나가서 다시 이마를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것이 몹시 앓는데 자네 돈 원 변동해주게…… 곧 갚으리.”

하고 죄 없는 어린애를 빙자하여 말한 것도 마음에 괴롭거니와 **그 사람과 같은 제배***건만 죄송스러운 목소리로 종이 상전의 앞에나 선 듯이 구걸하던 **자기의 그림자가 눈앞에 떠오**를 때 그는 자기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싶었다.

[중략 줄거리] 춘수는 열과 설사가 더 심해지고 팔까지 아프기 시작하자, 딸의 약을 얻기 위해 미안함을 무릅쓰고 의사에게 찾아간다.

“웬일이오? 여름에 뎁은 무사하오?”

진찰을 마친 의사는 의자에 앉은 춘수를 보면서 말을 붙였다. 그의 태도는 조금치도 춘수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으나 춘수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외식***같이 보였다.

“편하면 또 왔겠소…… 허허.”

춘수가 말을 다하기도 전에,

“또 누가 앓소? 누가.”

의사는 벌써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였다.

“어린애가 열이 나고 설사를 어떻게 몹시 하는지…… 또 졸라 왔소……”

춘수는 기분이 좀 폈다.

“응 그거 안됐는데…… 가만……”

하더니 그는 의자를 돌려 책상에 마주 앉아 처방지를 펴놓더니 다시 춘수를 보면서,

“언제부터?”

하고 묻는다.

“밤부터.”

하는 춘수의 말이 떨어지두마두 해서 의사는 처방을 써서 간호부에게 주면서 열른 지어오라고 부탁하였다.

“저 약을 써 보셔요…… 그런데 뎁은 왜 그리 빠졌소? 어디 편찮소?”

의사는 다시 의자를 가로타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물었다.

“설사가 나더니 이질이 되는 듯해서 마늘즙을 좀 먹었더니 좀 괜찮은 듯하나 아직도 덜 좋은데……”

춘수는 말하고 나서,

“병이나 없어야 살지! 허허.”

하고 웃었다.

“**병 없으면** 나부터 **못 견딜**…… 하하하.”

의사의 말에 춘수는,

“**나 같은 병자야 있으나 마나.**”

하고 마주 웃었다.

그때 간호부가 약을 들고 들어왔다. 의사는 다시 간호부에게 무어라고 하더니 간호부는 약국에 나가서 갑에 넣은 ② **알약**을 가지고 왔다.

“이 물약과 가루약은 어린애한테 먹이고 이진 뎁이 잡수.”

의사는 약을 춘수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춘수는 병원을 나섰다. 그날은 의사의 기분이 좋아서 그의 기분도 경쾌하였다.

하여튼 고마운 일이다. **가는 때마다 거절 없이** 하여 주는 것은 눈만 감으면 코를 베어 먹을 세상에서 고마운 일이다. 그 까닭이 있는 일이지만 춘수로서는 미상불 **감사히** 생각할 일이다. 그러나 **남의 기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기의 기분을 생각하니 그들에 피는 꽃과 같아서 세상에서 **비열한** 것은 자기 하나뿐만 같다.

“이러구 살아서 뭘 하오.”

그는 거리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뇌면서도 어린것에게 먹일 약이 손에 쥐어진 것을 펍 기뻐하였다.

— 최서해, 「무명초」 —

* 제배: 나이나 신분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사이의 사람.

* 외식: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2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해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서술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이 겪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28. '춘수'의 입장에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대방이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고, ㉡은 자신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 ② ㉠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받은 것이고, ㉡은 자신이 직접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에게 받은 것이다.
- ③ ㉠은 자신의 권위를 상대방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고, ㉡은 상대방의 권위를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이다.
- ④ ㉠은 상대방이 자신을 찾아오게 된 이유이고, ㉡은 자신이 상대방을 찾아가게 된 이유이다.
- ⑤ ㉠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된 계기이고, ㉡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계기이다.

2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은 춘수가 원고를 쓰기 전에 미리 원고료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 ② 춘수는 중학동 어떤 친구의 집에서 다른 사람이 가기를 기다렸다.
- ③ 주인은 자신의 집을 나서는 춘수에게 다시 오지 말아 달라고 했다.
- ④ 의사는 처방을 쓰기 전에 춘수의 딸이 언제부터 아팠는지를 물었다.
- ⑤ 춘수는 자신의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아 마늘즙을 먹었다고 의사에게 말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무명초」에는 극심한 빈궁 속에서 자괴감을 느끼는 지식인의 내면세계가 드러나 있다. 이때 자괴감은 현실적 문제를 타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모멸감 등으로 변주되며 지속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작중 인물은 자신의 처지에 공감하는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위안을 얻기도 한다.

- ① '김을 찾아'가 '원고를 써주기로 하고 돈 교섭'을 하려는 것에서, 작중 인물이 지식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함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목전의 현실'이 '그의 발을 문 안으로 끌어들었다'는 것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감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같은 제배'인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던 '자기의 그림자가 눈앞에 떠'올랐다는 것에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모멸감을 느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병 없으면' '못 견딜' 것이라는 말에 '나 같은 병자야 있으나 마나'라고 답하며 '마주 웃'는 것에서, 상대의 빈궁한 처지에 대해 언급하며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가는 때마다 거절' 없던 것에 '감사히 생각'하면서도 '남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 자신이 '비열'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는 중에도 자괴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간절한 사람도 없는 곳
고향으로 간다

머나 먼 날 저버린
고향으로 내가 간다

㉠ 낡은 옷 훌훌이 벗어 버리고
생미역냄새 하얗복 마시며 고향으로 간다

잃어버려, 끝내 잃어버려
없는 고향이라 포개둔 그리움이 한결 짙어
눈감아도 뒤흔던 예엿 어린 시절
좁은 골목 골목들이 서연하게 다가 오구나

세월이 흘러
내 ㉡ 또한 흘러
땀도는 지점에서 소용돌이가 되는 황혼무렵

통곡은 이미 사치스러운 것
무딘 신경에
새론 출발의 기적을 울리며
고향으로 간다

없는 고향이라 ㉢ 사뭇 그리워
그 그리움을 캐러 고향으로 내가 간다

- 김용호, 「고향으로 간다」 -

(나)

그들은 떠났다
무너져내린 판잣집들, 흩어진 유리 조각,
㉣ 검은 재를 밟으며 돌아오는 나에게
참새 한 마리
그들이 떠났다는 전언을 전하려는 듯
전선 위에 남아 있다가 이내 날아간다
저 새
제 날개의 가벼움으로 날아가듯이
나 이제 어떤 가벼움으로 살아야 하나
고향처럼 지나던 그 골목 잃어버리고
창 너머 백열등 불빛에 젖어 보던 저녁도 잃어버리고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서
㉤ 어떤 황혼에 물들며 서 있어야 하나
새 아파트에 살면서 그들의
매 묻은 벽지를 정겹다 말했던 나는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그들의
낮은 잠자리 기웃거리던 나는
잃어버렸다, 그들을, 또한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던 반성과
누군가의 비참을 필요로 했던 그리움을
아,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애뜻함을

그들은 떠났다
 닭의 울음소리를 데불고,
 푸른 이불과도 같이 누추한 지붕을 가려주던
 호박 덩굴마저 거두어내리고 ㉔ 충충히 사라졌다
 내 마음의 덩굴손이여
 너는 ㉓ 또 어떤 누추함에 뿌리를 내리려느냐
 누구의 가난을 또 푸르게 덮으려느냐
 허공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굴광성*의 영혼이여
 - 나희덕, 「그 골목 잃어버리고」 -

* 굴광성: 식물체가 빛의 자극을 받아 나타내는 굴성. 잎과 줄기는 빛의 방향으로, 뿌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짐.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㉑과 ㉒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은 화자가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고, ㉒은 화자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 ② ㉑은 화자가 상황의 변화를 앞두고 자신과 분리하는 것이고, ㉒은 화자가 주변 상황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것이다.
- ③ ㉑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변하게 된 원인을 보여 주는 것이고, ㉒은 화자가 자신의 변화로 인해 일어날 상황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다.
- ④ ㉑과 ㉒은 모두, 화자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 ⑤ ㉑과 ㉒은 모두, 화자가 주변 상황의 변화로부터 자신이 소외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33. ㉑ ~ ㉒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세월' 이외에 다른 존재도 흐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② ㉒: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③ ㉑: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서' 자신이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④ ㉑: '그들'이 급하고 바쁘게 '사라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㉑: '내 마음의 덩굴손'이 '누추함에 뿌리를 내리'는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이 상실의 경험에 대응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시에서는 이러한 상실의 경험이 화자의 행동이나 사유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가)의 화자는 과거에 떠난 삶의 공간이 이전의 모습을 잃었음에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그곳으로 향한다. (나)의 화자는 자신이 삶에서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를 잃어버리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달라진 상황을 계기로 과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고민한다.

- ① (가)의 '눈감아도' '좁은 골목 골목들이 서연하게 다가'온다는 것에서 화자가 과거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떠올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의 '그리움을 캐러 고향으로' '간다'는 것에서 화자가 떠난 곳을 향해 가는 목적을 엿볼 수 있군.
- ③ (나)의 '그들의' '때 묻은 벽지를 정겹다 말했던 나'에 대해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다고 하는 것에서 화자가 과거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④ (나)의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리'는 것에서 화자가 앞으로의 삶의 태도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⑤ (가)의 '끝내 잃어버려' '없는 고향'이라는 것에서 화자가 과거에 살던 공간이, (나)의 '그들은 떠'나고 '판잣집들이' '무너져내'렸다는 것에서 화자가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가 살던 공간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엿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